민주 새 원내대표에 원혜영 의원

결선서 이강래 의원 눌러 "강하고 유능한 야당 만들겠다"

민노당 새 원내대표 강기갑 의원, 부대표 이정희 당선자

통합민주당은 27일 18대 국회 첫 원내사령탑을 맡을 원내대표로 원혜영 의원을 선출했다.

김부겸 의원과 일찌감치 후보단일화를 성사시킨 원 의원은 결선투표까지 진행된 이날 투표에서 과반을 넘은 49표를 얻어 31표를 얻는 데 그친 이강래 의원은 누르고 신임 원내대표에 당선됐다.

원 의원은 이날 1차 투표에서 37표로 가장 많은 득표를 기록했지만 재적인원의 과반인 41표를 넘지 못해 결선투표로 이어졌다. 결선투표는 1차 투표에서 1위를 기록한 원 의원과 26표를 얻은 이강래 의원과 맞붙어 승리를 거뒀다.

원 신임 원내대표는 당선 소감에서 "차기를 준비하는 강한 야당, 대안 있는 유능한 야당을 만들겠다"면서 "5년 뒤 민주개혁평화세력의 재집권으로 완성될 때까지 일관되게 흔들림 없이 뒷받침하는 동력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전통이 아니라 새로운 시대정신을 찾는 것"이라며 "국민의 '니즈(요구)'가 무엇인지 찾고 실천함으로써 새로운 희망과 대안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원 신임 원내대표는 이날 17대 국회에서 야당인 한나라당이 법사위원위원장을 차지했던 원칙에 따라 18대 국회 원구성 협상에서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을 갖도록 하겠다고 공약해 조만간 시작될 한나라당과의 원구성 협상에서 치열한 힘겨루기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새 원내대표의 임기는 내년 5월까지 1년이며 오는 7·6 전당대회에서 선출되는 당 대표와 함께 거대 여당에 맞서 제1야당을 진두지휘하게 된다.

원 의원은 경기 부천 출신의 3선 의원으로 경복고와 서울대를 졸업한 뒤 풀무원식품을 설립했고 부천 시장을 2차례 지냈다. 17대 국회에서는 예결특위 위원장, 열린우리당 최고위원 및 사무총장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한편, 민주노동당도 이날 18대 국회 초반을 이끌어 갈 새 원내대표로 강기갑 의원을 선출했다.

민노당은 이날 오전 신임 원내대표에 강기갑 의원을, 부대표에 이정희 비례대표 당선자를 호선으로 선출했다. 강 의원은 선출 직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어울리는 자리가 아닌 듯 하지만 일단 맡았으니 최선을 다해 열심히 일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강 당선자는 4·9총선 당시 여당 실세 사무총장이던 이방호 한나라당 의원을 꺾고 재선에 성공, 총선 최대 스타로 떠올랐다. 그는 특히 미국산 쇠고기 전면 개방 파문에 맞서 시민들과 반대 운동을 펼쳐 호응을 받는 등 대중 정치인으로서의 보폭을 넓혀가고 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통합민주당 원혜영 의원이 27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18대 국회 첫 원내대표로 선출된 뒤 손학규·박상천 대표와 함께 손을 들어 지지자들에게 답례하고 있다. /연합뉴스

"친박 복당, 5월말까지 결론"

박근혜-홍준표 합의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와 홍준표 원내대표 당선자는 27일 회동을 갖고 탈당한 친박(친박근혜) 인사들의 복당 문제를 이달 말까지 결론내도록 한다는데 원칙적으로 의견을 같이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대표는 이날 자신의 의원회관 사무실에서 40여분간 진행된 비공개 회동에서 "5월 31일까지 당이 (복당과 관련해) 결론을 내려달라"고 거듭 요구했고, 이에 홍 당선자는 "그 때까지 결론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고 홍 당선자가 전했다.

홍 당선자는 회동 이후 "복당에 대해 시기는 전당대회 전에 하기로 최고위원회에서 결론이 났고, 절차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고 대상만 남았다"면서 "박 전 대표는 어떤 내용이든 5월31일까지 (대상에 대해) 결론을 내려달라는 것"이라고 밝혔다.

홍 당선자는 "의견 차이는 없었다"면서 "결론을 내 달라고 했고, 5월31일이면 내 임기 시작하고 이틀 밖에 안남았다. 그 전에 여러군데 논의해 5월말까지 결론이 나도록 노력해 보겠다"고 말했다.

복당 대상과 관련해선 "박 전 대표는 일괄복당 말을 오래전부터 해왔다"면서 이번 회동에서도 일괄복당 입장을 밝힌 것을 확인한 뒤, "(이에 대해) 당에서 논의해 봐야 된다. (서청원, 홍사덕 등) 구체적인 것은 나오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박 전 대표는 회동 직후 사무실을 나서며 "(홍 당선자가) 말씀하신 그대로"라며 "저는 '5월말까지 공식적인 당의 결론을 내달라 그때까지 기다리겠다'고 했고, 새 원내대표께서 '처리에 노력하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한나라 광주시당 위원장 김태욱씨 선출

김태욱 전 광주케이블TV 대표이사가 한나라당 광주시당 위원장으로 선출됐다.

한나라당 광주시당은 27일 광주시 북구 중흥동 광주시당 대강당에서 시당위원장 선출대회를 열고 김태욱 광주동구당협위원장을 신임 위원장으로 선출했다.

김 위원장은 대의원 259명 중 208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경선에서 124표(60%)를 얻어 84표(40%)를 얻은 한영 후보를 40표 차로 제쳤다.

김 위원장은 광주서중·일고와 전남대를 졸업한 뒤 중앙대에서 석사학위를 수료했다.

김 위원장은 광주케이블TV 대표이사와 제17대 대선 한나라당 중앙선대위 정책특별보좌역 등을 지냈으며, 지난 4·9 총선에서 한나라당 광주 동구 국회의원 후보로 출마했었다.

/홍행기기자 redplane@kwangju.co.kr

"호남 인재 활용 강력 촉구하겠다"

■김태욱 신임 위원장 인터뷰

김태욱 신임 한나라당 광주시당 위원장은 집권여당인 한나라당의 위상을 높이고, 소외되고 낙후한 호남지역 발전에도 적극 앞장서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김 위원장은 특히 광주시는 물론 야당과의 협력관계를 강화하고, 지역 현안사업에 대한 지원을 청와대와 중앙정부에 강력 건의·촉구하는 등 지역발전의 메신저로서 역할을 해내겠다고 다짐했다. 다음은 김 위원장과의 일문일답.

-광주시당 운영 방침을 말해달라.

▲청와대와 정부 그리고 광주시 사이에서 지역발전을 위한 '메신저'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지역민의 마음을 파고들어갈 생각이다. 지역 현안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선 정책결정권과 사업비를 손에 쥐고 있는 청와대나 정부와의 관계가 중요한 만큼 집권여당인 한나라당의 역할이 그만큼 커질 것으로 생각한다. 또 광주시를 비롯 야당과의 협력관계를 강화, 지역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

-우선적으로 추진할 사업이 있다면.

▲광주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정부와 당에 요청할 계획이다.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위원장의 경우 꼭 서울사람만 고집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광주를 잘 아는, 문화행정전문가를 영입해 줄 것도 건의할 생각이다. 이와 함께 영산강 뱃길복원 및 주변 관광레저타운 건설, KTX 조기 완공 등 지역 최대 현안사업에 대한 지원도 건의하겠다. 특히 최근 이명박 정부의 실책으로 거론되고 있는 부실인사문제와 관련, 광주·전남권 인재들을 적극 활용해 줄 것을 강력 촉구할 방침이다.

-한나라당의 지지를 높일 비책이 있는지.

▲한나라당도 변해야 한다. 광주에서 표가 나오지 않는다고만 불평할 것이 아니라, 표가 나오도록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대선 후보였던 시절, 광주를 잘 살게 만들어주면 한나라당에 대한 지지가 높아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나눈 적이 있다. 기획재정부 장관 같은 힘있는 자리에 호남인물을 기용한다면 지역현안사업을 손쉽게 해결할 수 있게 되고, 자연스럽게 한나라당에 대한 지지도 높아질 것이라는 요지였다.

/홍행기기자 redplane@

/ 프로필 /

실물경제·행정 능력 두루 갖춰

민주당 원혜영 원내대표

부천시장 출신의 3선 의원이다. 이념적으로는 재야에 가깝지만 기업 CEO와 시장을 거쳐 실물경제 감각과 행정능력을 두루 갖춘 것으로 평가받는다. 또 부드럽고 원만한 성격으로 화합의 리더십이 강점으로 꼽힌다.

지난 1971년 서울대 역사교육과에 입학한 후 민주화 운동에 가담해 두차례 옥고를 치른 이력을 갖고 있다.

지난 81년 풀무원식품(주)을 창업해 국내 최초의 친환경, 친자연 기업 모델을 만들어 성공한 CEO로 자리매김했다.

▲부천 출신 ▲경복고, 서울대 역사교육학과 졸 ▲풀무원식품(주) CEO ▲민주당 14대 국회의원(부천중을) ▲부천시장 ▲우리당 17대 의원(부천오정) ▲18대 국회의원(부천오정)

쇠고기 정국 주도 '농민 대변자'

민노당 강기갑 원내대표

미국산 쇠고기 수입 파동 정국에서 스타로 부상한 재선의원. 긴 수염에 두루마기가 트레이드 마크인 강 의원은 곧은 성품과 농촌문제 해결을 위해 진력해온 진정성이 당 안팎에서 인정받고 있다. 강의원의 지적을 줄기차게 받아온 농림수산식품부 내에서도 강 의원을 가장 합리적인 의원으로 꼽을 정도다. 17대 총선에서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한 강 의원은 한미FTA(자유무역협정) 반대 등을 주장하며 17대 국회에서만 총 69일간 단식하는 등 농민의 대변자 역할을 해왔다.

▲사천 출신 ▲사천농업고졸 ▲사천시농민회장 ▲전국농민회총연맹 경남도연맹 부의장 ▲전국농민회총연맹 부의장 ▲17대 국회의원(비례대표) ▲18대 국회의원(사천)

"정치인 출신 입각해야"

與 일각 '정무기능 보강론' 비등

한나라당 내부에서 정치인 출신의 장관 입각론이 연일 제기되고 있다.

이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 파동 등으로 이명박 정부 지지도가 급격히 하락하는 데 대한 당 차원의 해법 중 하나로 풀이된다.

박희태 의원은 지난 26일 "당정관계를 원활하게 풀기 위해 다음 조각 때는 국회의원 4~5명을 입각시켰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에 임태희 신임 정책위의장도 27일 "박 의원의 주장에 공감한다"며 "정당 책임정치를 실현한다는 측면에서 역량을 갖춘 인재풀을 갖출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홍준표 신임 원내대표도 이날 "당 정책위원회를 섀도캐비닛(예비내각)화 해서 정책위에서 장관 후보를 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